

# 남구 진로진학박람회 ‘인산인해’

학생·학부모 등 2000여명 참여… 진로체험 등 60개 프로그램 운영

학생들에게 자신의 적성에 맞는 진로 탐색과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2019 부산 남구 진로진학박람회’가 지난 9월 27일 평화공원 일원에서 열렸다.

남구와 부산교육청이 주최하고 남구 진로교육지원센터가 주관한 이번 박람회에 굿은 날씨에도 남구 지역 청소년과 학부모 등 2000여명이 몰렸다.

개막식에서는 신연초등학교의 난타 공연을 시작으로 국제영화고 학생들의 댄스공연과 미술공연이 박람회의 흥을 돋웠다.

이번 박람회는 직업에 대한 흥미와 학생들의 참여를 높이기 위해 48개의 학교 및 기관, 동아리가 참여해 60개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가장 눈길을 끈 분야는 29개의 부스가 마련된 직업체험존으로 심폐소생술, 특수분장, CSI과학수사대 등 전문 직업인들이 참여 학생들에게 다양한 직업의 세계를 설명했다.

또 초·중등학교에서 부스를 만들어



다양한 만들기 체험을 도운 메이커존과 초소형 로봇 등 대학교의 이색학과들이 참여한 전공체험존, 진로 동아리

존, 환경체험활동을 하는 생태환경존 등도 많은 인기를 끌었다.

이밖에 한국코치협회와 한국학습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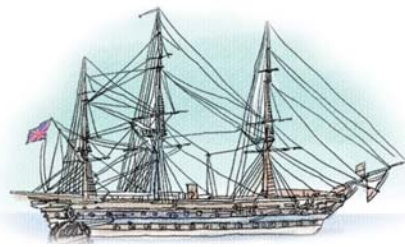
리측정연구소에서 진로상담존을 운영해 진로상담과 TLP(청치각훈련 프로그램) 상담도 가졌다.



## 222년 전 맨 처음 영어를 만난 남구사람들

### 남구 12경 ㉠ 우리가 몰랐던 신선대

해운대, 태종대처럼 부산의 경승지에는 ‘대(臺)’가 붙은 지명이 많다. ‘대(臺)’는 평지보다 높고 조망이 빼어난 곳에 붙이는 일종의 접미사. 1740년 동래부사 박사창이 쓴



지리책 ‘동래부지’에 ‘부산 8대(臺)’가 등장하는데 신선대가 그 중 한 곳이다.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숲길을 10여분 걸어 오르면 동해와 남해가 교차하는 일망무제 풍경이 장쾌하게 펼쳐진다. 오륙도 다섯 섬이 고명처럼 바다 위에 얹혀 있다. 막힌 숨이 탁하고 풀리는 느낌. 발아래 신선대 부두의 분주한 크레인 소리가 부산 경제의 맥동처럼 울린다.

신선대는 풍치도 풍치이지만 품고 있는 사연은 더욱 흥미롭다. 영어가 한반도에 처음 들어온 곳 바로 신선대 앞바다이기 때문이다.

이야기는 정확히 222년 전인 1797년 10월 14일(정조21년)로 거슬러

간다. 신선대 바로 아래 용당포 앞 바다에 이날 정체불명의 범선 한 척이 나타났다. 북태평양을 탐사하던 중 연료로 쓰는 뿔감과 식수가 바닥나 용당포까지 떠밀려 온 87톤급 영국 탐사선 프린스 윌리엄 헨리호(함장 윌리엄 로버트 브라우턴)였다. 낮선 이양선의 출몰에 용당포는 물론이고 나라 전체가 발각 뒹졌다. 급기야 용당포 주민들과 관원들이 나룻배를 나눠 타고 헨리호에 올랐다. 조선이 최초로 영어를 만나는 역사적 순간이었다.

하지만 언어불통으로 소통은 당최 불가능했고, 조정은 선원들이 육지에 내리지 않는 조건으로 함선에 필요한 물과 나무를 제공했다. 하지만

호기심을 못 견딘 함장과 선원들은 몰래 몰로 올라왔고 주민 몇몇의 도움을 받아 신선대에 올라 남구 일원을 탐사·측량하고 이를 그림으로 남겼다. 헨리호는 8일간 용당 앞바다에 머물다 탐사를 계속하기 위해 신선대를 떠났고 이때 브라우턴 함장은 자신들을 도와준 용당포 친구에게 권총과 망원경을 선물했다.

이 놀라운 이야기는 역사 저편에 묻혀 있다가 1994년 용당에 위치한 한국철석유의 대표로 부임한 라일리 사장이 영국에서 발굴한 지도를 통해 확인하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신선대는 보이는 풍경보다 감춰진 스토리가 더 강렬한 곳이다.

## ‘뮤지컬 도시’ 남구를 부탁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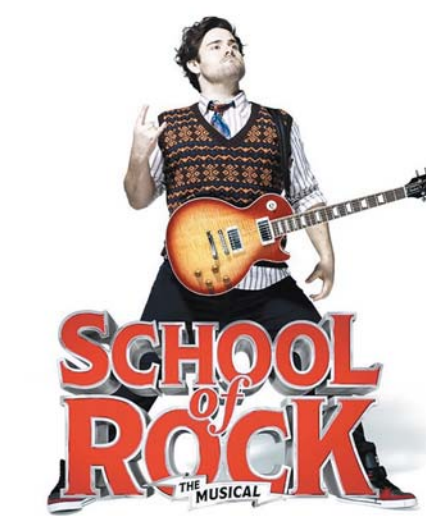
문현동 드림씨어터 ‘스쿨 오브 락’을 보고나서

가을태풍이 연달아 휘몰아치고 가니 16년 전 태풍 ‘매미’가 엄습했을 때가 생각난다. 수많은 피해 중에서도 뮤지컬 ‘캣츠’가 공연될 벅스코 야외무대가 무자비하게 찢겨나간 것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CNN 방송까지 타며 세간의 화제가 되었던 그 공연장은 국내 최초로 시도된 대규모 이동식 가변극장 ‘빅탑씨어터’였다. 오직 뮤지컬 ‘캣츠’만을 위해 만들어진 공연장은 120억원의 재산을 담고 재장비되어 관객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그리고 16년이 지났다. 당시의 태풍 피해를 계기로 건립 논의가 시작된 문현금융단지 내 뮤지컬 전용극장 ‘드림씨어터’가 올 4월 문을 열었고 개관작 ‘라이온킹’에 이은 얼마전 두 번째 ‘스쿨 오브 락’이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스쿨 오브 락’ 관람을 위해 찾은 드림씨어터의 첫인상은 ‘국내 최대 규모의 뮤지컬 전용극장’이라는 수식어가 조금 무색해 보였다. 사실 기대했던 것보다는 무대가 왜소해 보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막이 올라 무대장치가 펼쳐지고 음악과 노래가 공연장을 가득 채우기 시작했을 때, 작아보였던 무대가 한없이 커보였고 기대감은 100% 그 이상으로 충족됐다.

스쿨 오브 락은 밴드에서 쫓겨난 로커 ‘듀아’가 대리교사로 위장 취업해 학생들과 몰래 스쿨밴드를 결성, 대회에 출전하는 과정을 유쾌하게 그린 뮤지컬로 여느 뮤지컬보다도 음향이 중요한 요소다. 아역 배우들이 라이브 연주로 공연을 하기 때문이다. ‘뮤지컬 전용’ 극장답게 드림씨어터는 배우들이 오랜 시간 연습하고 준비한 연주를 완벽하게



전달해냈다. 3층 관람객도 만족할 만한 음향이었다고 하니, 1층 중앙 좌석이 아닌 2층, 3층, 구석진 곳 어디에 앉아도 좋은 소리를 들을 수 있게 설계됐다는 말이 증명된 셈이다. 또한 타 뮤지컬보다 무대 전환이 잦은 편이었는데 공연 몰입도에 전혀 문제가 없었다. 드림씨어터가 갖춘 최신식 전동시스템이 빠르게 무대를 전환해주었기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이 훌륭한 공연장 환경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드림씨어터의 관객수는 폭발적인 수준은 아니다. 이곳 대구는 크고 작은 공연장 인프라 조성이 잘 되어있어 지방 도시 중에서도 뮤지컬 공연 관객수가 가장 많다고 한다. 덕분에 대구를 시작으로 진행되는 투어 공연도 많다.

드림씨어터는 오리지널 뮤지컬 ‘위키드’와 ‘오페라의 유령’ 등 세계적 공연을 앞두고 있다. 이름만 들어도 흥분되는 이 뮤지컬을 집 가까이에서 누릴 수 있다는 것은 그림에도 불구하고 큰 행운이다.

김윤경 주무관  
(남구청 소통감사담당관)

### ‘전통 성년례’ 참가자 모집

아름다운 우리전통을 재연하는 제8회 전통 성년례 참가자를 모집한다. 행사는 제23회 오륙도평화축제 첫날인 10월 19일 오후 2시 평화공원 바다분수에서 열린다.

만 19세~24세 남녀 청소년(외국인 가능으로) 각각 15명으로 10월 11일까지 신청서(남구청 홈페이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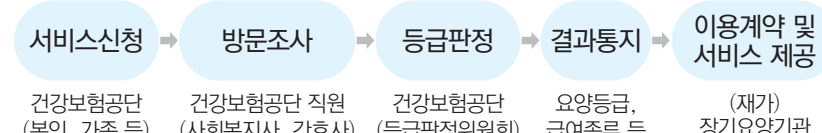
www.bsnamgu.go.kr-공지사항)를 이메일 (myjihnn@korea.kr)이나 팩스(☎607-4519)로 제출하면 된다(팩스 제출 후 전화 확인).

단체신청도 가능하며 행사 당일 필요한 전통의상 제공하고 자원봉사 실적(4시간) 인정, 기념품과 기념 촬영 등을 해준다.

###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이용하세요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치매·중풍·파킨슨 등의 노인성질환으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65세 이상 노인 또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자에게 가정이나 장기요양기관에서 신체활동이나 가사활동 등을 돕는 복지 서비스입니다.

#### ■ 장기요양급여 이용절차



#### ■ 급여내용

- 시설급여 :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 입소보호
- 재가급여 :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 보호, 복지용품 구입 또는 대여

### 10월은 교통유발부담금 납부의 달입니다

○납부기간 : 2019. 10. 16.~10. 31.

○납부대상 : 2019. 7. 31.현재 교통의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 중 각종 바닥면적(건축물 연면적)의 합계가 1,000㎡이상인 시설물소유자  
※ 공동시설물(집합건물)은 소유자분 면적이 160㎡이상인 소유자

○부과기준일 : 2019. 7. 31.

(부과기간 : 2018. 8. 1.~2019. 7. 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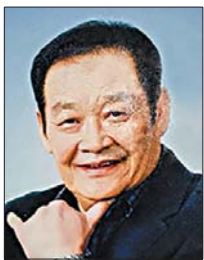
※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교통정비를 위한 사업에 쓰입니다.

### 이기대 반딧불이 전도사

#### 김규영씨 고희 기념 시화전

이기대 반딧불이 전도사로 봉사활동을 펼치는 김규영(아름다운 남구21추진협의회 부회장) 선생이 고희 기념 ‘이기대 반딧불이 사랑, 삶과 그림전’을 개최한다. 시화전은 10월 12~21일 열흘간 디지털카페 설림 대연점(남구 유엔평화로 3)에서 열린다. 선생이 틈틈이 그린 30점의 수채화에 자작시 40편을 엮었다.

시화전에 맞춰 문단 등단 이래 40년간 써온 작품들 가운데 단편 10편, 콩트 1편, 미발표 중편 1편 등 12편을 추려 새로 발간한 소설집 ‘숨머리’ 출판회도 시화전 첫날인 10월 21일 오후 3시에 가진다.



#### ■모집·안내

#### 제2회 부경선상인문축제

인문학 관련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인문학의 강화와 축제가 결합된 제2회 부경선상인문축제가 10월 19일(토) 오전 10시~오후 8시 용호만 매향부두 부경대 실습선 나라호 등지에서 열린다. 부경대학교 인문학플러스(HK+)사업단에서 주최하는 이번 행사는 선상릴레이 강연과 영화 상영, 조선통신사 뱃길탐방, 모험배 만들기, 공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된다.

#### 남구소년소녀합창단 단원 모집

남구의 문화사절단인 남구소년소녀합창단 신규 단원을 모집한다. 남구 거주 또는 남구 소재 학교에 재학 중인 초등 3~5학년 학생으로 남구 홈페이지(http://www.bsnamgu.go.kr)에서 응시원서를 내려 받아 남구청 문화체

육과로 10월 11일까지 방문접수하면 된다. 실기시험은 10월 13일(일) 오후 2시 남구청 1층 대강당에서 열린다.

#### 10월 5일 우암마을 건강운동회

우암동 마을건강센터가 주최하는 우암마을 건강운동회가 10월 5일(토) 10:00~12:00 성지고등학교 체육관에서 개최된다. 공굴리기, 박 터트리기, 건강 골든벨 등 유쾌하고 다양한 주민 참여 행사가 마련된다. 우암동 주민 및 단체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 사전 신청 ☎607-6894~5

#### 남구문화원 노래교실 회원모집

남구문화원에서 제4기 노래교실 회원을 모집한다. 매주 목요일 오후2시(90분 수업) 남구청 1층대강당에서 열리는 노래교실에는 정혜원 (부산예술회관, 새마을금고, 웃음치료사)씨가 강사로 나온다. 수강료는 3개월

30,000원(교재비 포함)이며 수강 신청은 10월 10일(목) 개강 당일 현장에서 접수하면 된다. 문의 부산남구문화원 ☎624-1333

#### 10월 4일 구민 나눔장터

구민 나눔장터가 10월 4일(금) 남구청 광장에서 열린다. 재활용품 판매를 희망하는 남구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9월 30일~10월 2일 청소행정과(☎607-4452~4) 또는 방문 신청하면 된다. 오전 10월 11일(금)로 연기.

#### 남구 성인문해 시화전

오는 한글날을 맞아 남구 한글교실의 어르신 수강생들의 작품을 일반에 공개하는 ‘제1회 부산남구 성인문해 시화전’이 9월 30일~10월 11일 남구청 1층에서 열린다. 어르신들이 한글을 배우면서 틈틈이 준비한 시화작품 40여점이 전시된다.